

지역 물가 상승률 2000년 이후 최고

통계청 6월중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유가 급등·각종 서비스 요금 인상 여파로

장바구니물가 8개월째 5% 이상 '고공행진'

지난달 광주·전남은 유가급등과 각종 서비스요금 인상 등의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전남은 식료품 등 '장바구니' 물가가 8개월째 5% 이상의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물가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물가는 1년 전인 지난해 6월에 비해 6.0%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5.5%)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2000년 물가지수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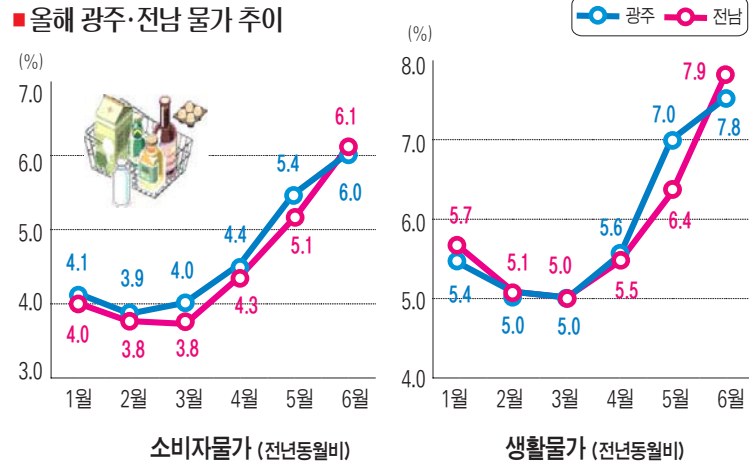
이처럼 물가가 뛴 것은 올 들어 교육비와 서비스물가가 크게 오른 데다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는 서민용 기름인 등유가 1년 전보다 67.2%나 오른 가운데 ▲경유(52.1%) ▲취사용 LPG(37.7%) ▲휘발유(21.8%) 등 고유가로 인한 물가급등 추세가 두드러졌다.

이같은 상황은 전남도 비슷하다. 지난달 전남의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6.1%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밀가루가 1년 전보다 91.3%나 오른 것을 비롯, ▲등유(72.7%) ▲경유(56.3%) ▲곡수(55.9%) ▲세탁비누(47.0%) ▲금반지(43.9%) ▲당근(41.8%) 등의 가격 오름세가 뚜렷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각각 7.8%, 7.9% 뛰었다. 이는 전국



평균(7.0%)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서민들의 물가급등에 대한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란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지수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을 나타낸다. 실제 광주는 6월 들어 파값이 26.2%나 올랐으며, 시금치(11.8%), 등유(11.6%), 돼지고기(10.0%), 취사용 LPG(9.2%), 오이(7.3%), 경유(7.3%) 등의 오름세를 보였다. 전남도 시금치값이 한 달새 39.5%



광주·전남선도기업협회가 지역내 20여명의 중견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중소 활성화로 지역경제 성장 이끈다

혁신형 기업 등 참여 광주·전남선도기업협회 발기인 대회

광주·전남선도기업협회가 1일 발기인 대회를 갖고 기업 활성화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역동성 넘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을 천명했다.

이날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열린 발기인대회에는 고문으로 위촉된 박성수(산학협동연구원장·전남대 교수)·장춘상(아름기공 회장)·김국용(무등대 표)·고정주(나영산업 대표)·김성봉(한국정밀 대표)씨, 감사로 선임된 이항수(이항수 공인회계사사무소 대표)가 참석했다. 또 정성만(픽슨, 기계·철강), 조성은(무진기연,

부품·소재), 이현도(대방포스텍, 광산업), 김창수(현성테크노, 자동차), 박인수(경인중공업, 조선), 강문식(파루, 화학·환경·에너지), 김정태(살품산업, 생명·식품), 김향덕(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장, 문화·디자인)씨가 분과별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밖에 진용출(파프스 대표), 조병수(오픈테크놀로지 대표)씨가 운영·개발연구위원으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인봉), 신용보증기금 전남영업본부(본부장 이진서)

등이 정책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서는 협회 회원자격으로 ▲혁신형 기업 및 수출유망기업 ▲업력 3년 이상, 전년도 매출기준 10억원 이상, 고용보통기준 10인 이상 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우 기업 등 '최소 자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보근 회장은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대기업과의 상생, 공동 브랜드 출시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회원기업은 물론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지역 건설사 최대 애로사항

"원자재 가격 상승 경영 악화"

상의 500개사 조사

대부분의 지방 중소건설사들이 최근 건설경기가 좋지 못하다고 체감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원자재 가격 상승'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500개 지방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지방 중소건설사 운영실태 및 현안애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기업의 92.6%가 급변 상반기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기업들의 대다수는 올 하반기 건설경기에 대해서도 '악화될 것'(매우 악화) 43.6%, '다소 악화' 35.2%이라고 대답,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암울한 전망을 드러냈다. 이처럼 지방 건설업체들이 부정적인 평가와 전망을 내

놓고 있는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최근의 최대 애로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52.5%)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수주 물량 급감'(21.4%), '자금난'(15.6%), '인력난'(3.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원자재 확보 어려움에 따른 공사 지연'이 40.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자본잠식'(31.4%), '채산성 악화'에 따른 공사중단(13.4%) 등의 순이었다. 건설사들은 최근 가격상승의 영향이 가장 큰 원자재로 철강재(76.6%)를 지목했으며, 유류(8.2%), 레미콘(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철뉴스

지역기업 대북투자 타진

광주商議 개성공단 방문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이승기)가 개성공단을 방문, 광주·전남 회원기업의 대북 투자 가능성 타진에 나섰다.

광주상의는 상공의원과 회원 51명이 2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입주업체인 삼덕통상 등을 둘러보고 근로자의 임금, 각종 지원제도, 투자시 유의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다. 삼덕통상은 전남 보성출산인 문창섭 사장이 운영중인 세계적인 신발제조업체이며, 문 사장은 최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 이어 개성공단협의회장에 취임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개성의 투자적격여부를 판단해보는 방문"이라며 "이러 광주상의내에 실무단을 꾸려 오는 9~10월 2차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실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대기자 jilee@

광주시,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지원

중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안내 시스템 구축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시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제품 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ksbs.or.kr)에 각각 '광주 중소기업 안내' 코너를 개설, 운용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이 코너를 클릭할 경우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상세정보를 전자책 형태로 살펴볼 수 있으며 해당 기업 홈페이지로 곧바로 연결된다. 시는 원자재난과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 시민들에게 기업사랑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광주 중소기업 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기아차, 6월 판매량 11만6천대

전달보다 3.5% 증가... 상반기 총 70만대

기아차는 올해 6월에 내수 2만5천754대, 해외 9만633대 등 총 11만6천387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작년 같은 달에 비해 내수는 17.0% 증가했고 해외판매는 0.2% 늘면서 지난해 총 판매실적은 3.5% 증가했다.

기아차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내수 15만4천30대, 해외 55만2천140대 등 총 70만6천170대를 판매했다.

내수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15.3% 실적이 증가했고 해외판매는 1.6% 늘어나면서 총 판매 실적은 4.3% 증가해 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상반기 내수 실적을 보면 점차 모

닝의 인기와 지난달 로체 이노베이션의 출시로 승용차 판매가 9만1천161대로 작년 동기 대비 45.1% 늘었으며 해외에서는 씨드가 유럽 현지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43.8% 증가한 8만9천115대가 팔렸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6월에 내수 4만8천301대, 해외 20만5천545대 등 총 25만3천846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내수 판매는 14.6% 줄었고, 해외 판매는 20.0% 증가하면서 지난해 총 판매실적은 11.4% 증가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달리미 2hour 택배'

광주지역 가맹점 모집

립스로지스틱스코리아(주)는 오토바이 퀵서비스와 택배의 장점을 결합한 '달리미 2hour 택배' 가맹점을 모집 중이다.

이 택배는 오토바이와 지하철을 연계해 6천900원의 균일 요금으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2시간 내로 물건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역세권과 역세권 사이는 지하철을 통해 배송하고, 배달이되지 못 도착지까지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시스템이다. 문의 02-767-2641~3.

회사 관계자는 "높은 투자가치로 인해 수도권은 물론, 광주와 부산 등 지방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보람상조와 함께 일 새가족을 모집합니다

보람상조는 보람있는 인생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람상조는 보람있는 인생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람상조는 보람있는 인생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동산 문법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영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남골당은 전통적인 문법정사 극락전을 모신 남골당이 있습니다. 남골당은 전통적인 문법정사 극락전을 모신 남골당이 있습니다.